

청동기시대 군집묘와 혼계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응합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huare@nuch.ac.kr

-
- I . 들어가며
 - II.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에서의 혼계
 - III. 청동기시대 군집묘 사례 검토
 - IV.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보이는 혼계
 - V. 맺음말
-

I. 들어가며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는 사회복합화의 결과물인 종적 위계(縱的 位階)의 등장이 가장 전형적인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특히 도작 농경이 정착되고 도작 농경을 경제적 바탕으로 대규모 취락이 만들어지는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 단계에는 사회 내부의 종적 위계가 명확해지고, 이러한 위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고고 자료에 반영된다고 본다. 취락의 규모 차이, 취락 내 주거지의 규모와 입지, 출토유물의 차이 등이 그러한 증거이며, 특히 지석묘로 대표되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대규모 분묘의 축조와 비파형 동검, 마제석검의 부장 등은 사회적 위계의 전형적인 증거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회 내에는 종적 위계 외에 다양한 방식의 수평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과거 사회는 종적 그리고 횡적인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혼계(混階, heterachy) 개념이 소개되면서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반드시 종적 위계의 반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횡적인 관계는 단순히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친연적 관계 외에 다양한 기제, 예를 들면, 성별, 직능, 출자(出自) 등을 매개로 한 관계로, 사회 내에서 종적 위계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취락 및 무덤의 조성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계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속성 및 속성의 조합이 어떻게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橫的連繫)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물론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인골의 출토가 매우 빈약하고 부장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3-C17).

횡적 연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시론적인 의미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에서의 혼계

한국고고학에서 혼계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청동기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 물론 이후에는 고대국가의 성립기의 사회 관계를 혼계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시도²가 있기도 했지만, 가장 처음 혼계의 개념이 소개된 것이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사회적 위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이 청동기시대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조를 종적 위계라는 틀로 모든 물질문화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청동기시대 고고학에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그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서 혼계의 개념이 소개된 것이다. 가장 먼저 혼계의 개념을 소개한 연구³에서는 취락 연구에서 주거지의 규모, 입지, 출토 유물의 차이 등을 모두 종적 위계의 증거로 파악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특히 송국리문화 단계는 위계화가 진행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지의 규모 차이가

-
- 1 김장석,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2007); 우정연, 「금강 중류 송국리형 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2011a);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2011b); 김범철·박주영, 「호서지역 송국리형 분묘의 계층화양상 논의」, 『한국고고학보』 82(2012).
 - 2 고일홍, 「한국 고고학의 고대 국가형성 연구를 위한 일 검토: 유럽 고고학이 제공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고고학』 13-1(2014).
 - 3 김장석, 앞의 논문(2007).

위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전제와 더 나아가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가 “사회적 복합화 과정은 중앙집권화 및 수직적 분할 과정이라는 등식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하고 가변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 혼계의 개념을 소개했다.⁴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혼계의 개념을 구체적인 고고자료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주로 동시기성을 확보하기 쉽고 기존의 연구에서 종적 위계의 전형적인 증거로 이야기되었던 무덤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혼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골의 출토가 극히 한정되고 매우 적은 수의 부장품만이 확인되는, 그리고 부장품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청동기시대의 무덤 자료로는 횡적 연계⁶ 중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성별, 연령, 출자 조차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무덤 부장품을 피장자의 성별의 상징으로 파악하려는 연구⁷ 등을 포함해 무덤의 다양한 속성을 종적 위계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무덤에서 보이는 속성 및 속성의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

4 위의 논문, 13쪽.

5 김범철·박주영, 앞의 논문(2012); 우정연, 앞의 논문(2011a).

6 이 글에서는 종적 위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횡적 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경제적 혹은 권력에 따른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동일한 위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별, 직능, 출자 등을 바탕으로 하는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連帶)’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론 성별, 직능, 출자 등이 청동기시대 사회 모든 집단에서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반영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권력의 수직적 서열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종적’인 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횡적 연계’로 표현하고자 한다.

7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2001);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2011); 히라고리 다쓰야,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로 공통되게 또는 상이하게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중기의 분묘에 대해서 돌출되는 속성을 가진 분묘는 유력 집단 또는 유력 개인의 분묘로 파악하고, 그와는 구분되는 ‘분묘의 군집’은 일반인의 무덤 또는 세대, 가족 등의 무덤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군집묘 중 다른 무덤과는 구분되는 규모 또는 부장품을 가진 무덤은 유력 개인묘로 파악하고, 그 외의 무덤은 당시 취락을 구성했던 일반인의 무덤, 이러한 무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세대 또는 가족의 무덤 등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군집묘 내에서도, 성별, 직능, 출자 등 다양한 맥락에 따른 구분에 따라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 즉, 무덤의 특정 속성 또는 속성의 조합이 ‘종적 위계’가 아닌 다른 구분, 피장자들의 횡적 연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대상은 청동기시대의 군집묘로 한다. 청동기시대의 분묘는 전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⁸ 출현 초기에는 단독 또는 한 두 기의 무덤만이 조성되며, 이렇듯 취락 구성원 전체의 무덤이 아닌 소수의 무덤만이 축조된다는 것은 무덤 출현 당시부터 피장자는 다른 구성원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덤은 출현부터 종적 위계의 증거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 중기에 들어서면 다수의 무덤이 하나의 묘역에 조성되는 군집묘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군집묘 내 각각의 무덤은 형식, 규모, 축조방식, 부장품, 배치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속성은 서로 공통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속성의 조합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속성 조합의 차이는 종적인 위계를 반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종적 위계와는 무관한 다양한 상호 간 관계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종적 위계

8 배진성, 「분묘 축조 사회의 개시」, 『한국고고학보』 80(2011); 배진성,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에 대한 보론」, 『호서고고학』 40(2018).

를 반영하는 속성 외에 다양한 속성의 조합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를 검토해 본다.

흔계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청동기시대의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개별
속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⁹

- ① 무덤 축조의 대원칙: 군집묘의 개별 분묘를 모두 아우르는 속성
- ② 종적 위계·횡적 연계의 기준: 개별 분묘 피장자 간의 특정 ‘관계’를 반영하
는 속성
- ③ 무덤 축조의 자유도: 무덤 축조의 대전제 또는 종적 위계·횡적 연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무덤 축조 시 상황에 맞게 또는 특정한 의미 없이 선택되는
속성

개념적으로는 이상과 같이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횡적 연계의 기준과 자유
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무덤을 통해 횡적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일정 수 이상의 군집묘이다. ‘군집묘’라는 명칭은 청동기시대 연구
논문에서 종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규모를 의미
한다. 흔히 단독묘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3기 이상의 무덤이 한 곳에 모여 있
는 경우 ‘밀집’ 또는 ‘군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군집묘’는 연구자에
따라 5기¹⁰ 또는 10기 이상¹¹ 등이 모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개별 무덤의

9 이어한 분묘의 공간적 군집에서 보이는 속성들을 미시적 전통(tradition), 선택지들
(options), 참조방식(ways of referencing)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정연, 앞의 논문
(2011b), 42쪽.

10 위의 논문, 44쪽.

11 김범철·박주영, 앞의 논문(2012), 18쪽.

속성이 군집묘 내에서 공통된 양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무덤이 있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20기 이상의 무덤이 확인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무덤의 동시기성이다. 무덤 분석을 통해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을 ‘묘역’으로 인식하고, 개별의 무덤들이 어떠한 방식이든, 예를 들어 입지, 부장품, 축조 방식 등에서 동일하거나 구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무덤 속성의 조합은 기존에 이미 조성되었던 무덤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군집묘는 그러한 기존 분묘를 인식하고 조성된 무덤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집묘는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동시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덤 출토 유물 등을 통해서 동시기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서로 중복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경우 동시기로 파악한다.

셋째, 무덤 조성의 대원칙과 횡적 연계 속성이다. 횡적 연계 속성은 특정 집단의 무덤 축조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무덤 축조의 대원칙은 무덤 형식, 축조 방식, 배치 등 특정 속성 또는 속성들에 반영될 것이다. 보수성이 강한 무덤의 특성상 축조의 대원칙은 집단 전체에 공유될 것이며, 어떠한 속성보다 우선시되기에 횡적 연계가 이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며 또한 축조 대원칙에 해당되는 속성은 횡적 연계의 속성이 될 수는 없다.

넷째,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 속성이다. 횡적 연계를 반영하는 속성은 종적 위계를 반영하는 속성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덤의 비파형동검 부장 유무가 종적 위계를 반영한다면 비파형동검은 횡적 연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섯째, 횡적 연계와 무덤 배치 양상이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횡적 연계’는 무덤의 배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무덤 축조 대원칙이 열상배치라면 그 배치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덤 형식 또

는 축조 양식 등으로 횡적 연계를 의도할 수 있다.

여섯째, 무덤과 취락의 배치 양상이다. 무덤에서 보이는 횡적 연계가 취락 내 주거지 배치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덤 속성에서 보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혼인 관계로 구성된 취락 내 주거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째, 집단에 따른 속성 기준의 다양성이다. 동일 맥락을 반영하는 속성은 군집묘를 조성한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 구조와 관계되는 종적 위계를 반영하는 속성은 무문토기 문화권 전체에서 공통될 수 있지만, 횡적 연계를 반영하는 속성은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군집묘에서는 부장품이 출자에 따른 구분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른 군집묘에서는 축조 방식이 출자의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무덤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는 여러 방법론적 문제점이 있다. 무덤의 형식, 축조 방식, 부장품, 입지, 배치 상황, 다른 무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속성 또는 속성의 조합을 통한 구분이 가능해도,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무엇을 반영하는지는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석관묘로 이루어진 군집묘 내에서 바닥시설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해도, 이러한 차이가 출자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혹은 성별에 따른 구분인지를 알 수는 없다. 이것은 인골의 출토가 빈약하고 각 분묘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 때문으로,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덤 속성의 분석에 있어 특정 속성과 사회적 구분의 일대일 대응을 경계하고, 각 속성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정 맥락과 관련된 특정 속성은 다른 군집묘의 해석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¹²

12 위의 논문, 14쪽.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종적 위계를 나타내는 속성, 예를 들어 무덤의 압도적인 규모 차이, 부장품, 입지 등의 가시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서로 조합되는 속성이 반드시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무덤의 모든 속성이 특정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종적 위계가 아닌 경우 이를 모두 혼계의 반영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에서는 여러 경우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III. 청동기시대 군집묘 사례 검토

대상 유적은 하나의 묘역에 다수의 무덤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군집묘를 기본으로 했다. 그리고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하나의 형식(석관묘)만으로 군집묘를 이루는 사례, 여러 형식의 무덤(소형 석관묘+소형 석개토광묘, 석관묘+석개토광묘,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이 모여 군집묘를 이루는 사례를 대상으로 했고,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에 확인되는 묘역지 석묘 연접묘도 검토 대상으로 했다. 묘역식 지석묘 중 연접묘는 지석묘, 석관묘 등에 비해 청동기시대의 보편적인 묘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기존 분묘를 의식하고 새로운 분묘를 조성한 방식으로, 횡적 연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 사례별로 군집묘 내 개별 분묘의 속성을 분석하여 서로 공통되는 또는 구분되는 속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속성의 양상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한다.

1. 나주 영천유적: 석관묘만으로 구성된 군집묘

나주 영천유적¹³에서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18기와 석관묘 21기가 확인되었다. 18기의 주거지는 송국리식 주거지와 방형주거지로 청동기시대 중기로 비정되며, 석관묘 역시 동일한 시기이다.

21기의 석관묘는 구릉의 말단부 평탄면에 중복없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10, 11호 두 기만이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축조되었다(그림1, 그림2). 축조 방식은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대부분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사용하고 장벽은 2~4매의 판석 또는 할석형 판석을 이용했으며, 바닥시설은 생토, 판석, 할석으로 구분된다. 요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천유적의 석관묘는 규모로 보면 장축 1m 미만의 소형, 1~1.7m 미만의 대형, 1.7m 이상의 초대형으로 구분되는데(표1), 소형의 경우는 생토, 대형의 경우는 판석과 할석, 초대형은 할석으로 바닥시설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규모와 바닥시설의 조합 외에 다른 속성들의 조합이 명확하게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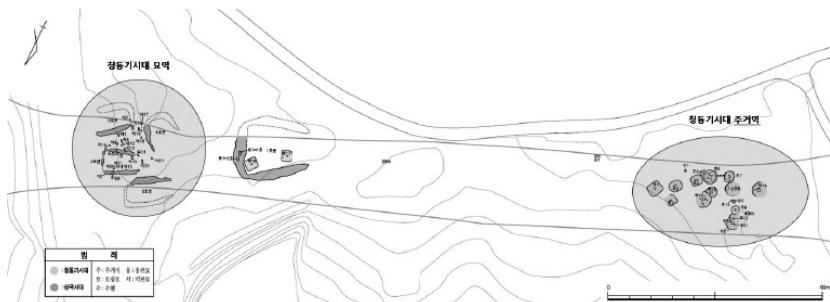


그림1-영천유적 유구분포도¹⁴

13 이영철·류향미·신원재,『나주 영천유적』(광주: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14 위의 책, 17쪽, 도면 3을 필자가 편집.

인되지는 않으며, 21기 중 3기를 제외하고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다만 묘역의 중심부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는 5호 석관묘의 경우, 할석형판석으로 축조하고 바닥은 잡석을 깔았으며부장품으로 삼각형석도, 미완성석기, 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주구묘에 의해 일부 교란되기는 했지만 장축 205cm 이상으로 무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규모와 입지, 부장품 등에서 영

표1-영천유적 석관묘 속성표

(단위: cm)

호수	석관 규모			구조	바닥	유물
	장축	단축	깊이			
1	94	22	22	판석	생토	
2	100	32	18	판석	할석	
3	(160)	34	27	판석	생토	
4	90	25	28	판석	생토	
5	(205)	47	47	할석형판석	할석	무문토기, 석부, 미완성석기, 삼각형석도
6	142	47	32	판석	생토	
7	172	37	34	판석	할석	
8	(110)	(40)	13	판석(?)	할석	
9	132	28	27	판석	생토	
10	177	55	40	판석	판석	
11	154	41	23	판석	판석	
12	(151)	(33)	34	판석	판석	
13	(140)	27	18	판석	생토	
14	(211)	63	11	판석	할석	
15	161	31	30	판석	생토	
16	(153)	(38)	19	판석	생토	
17	(122)	(40)	30	판석	생토	
18	68	24	21	판석	생토	
19	(117)	35	28	판석	생토	
20	160	36	37	판석	할석	유경식석촉, 지석
21	(115)	56	?	할석형판석	할석형판석	무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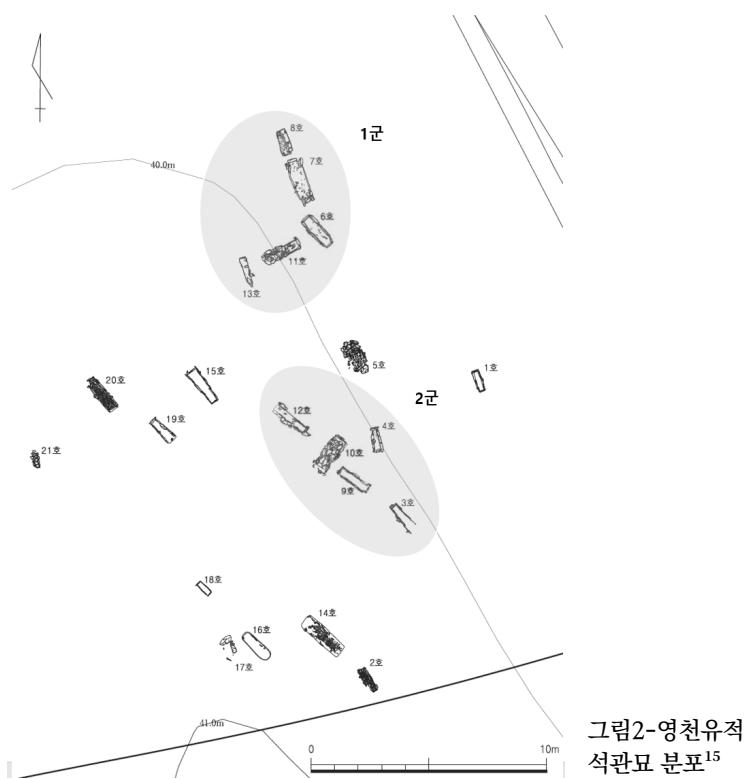


그림2-영천유적
석관묘 분포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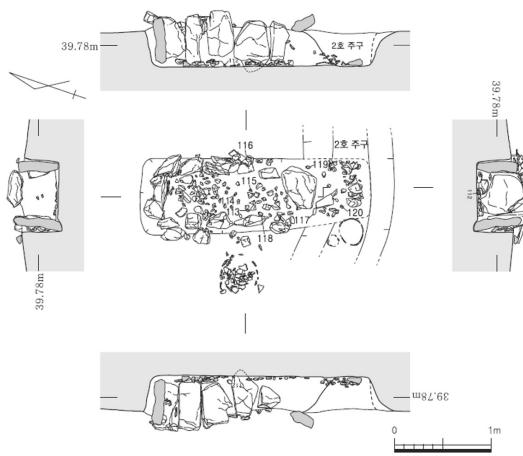


그림3-영천유적 5호
석관묘¹⁶

천유적 석관묘군 중 가장 돌출되는 무덤이다(그림3). 그 외 다른 대부분의 무덤들과 달리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성된 무덤이 두 기 확인된다. 10호의 경우, 4·9·12호와, 11호는 6·13호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된 점으로 보아 기존 분묘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장축방향을 달리해서 축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축 177cm(10호), 154cm(11호)의 규모에 벽석과 바닥석을 판석으로 조성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장축 방향을 제외하면 다른 석관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2). 다만 장축 방향을 달리하는 10호와 11호를 중심으로 5기의 무덤이 몰려있는 배치를 보이는데, 1군인 6·7·8·11·13호는 대형(6·8·11·13호)과 초대형(7호)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규모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바닥 시설은 생토(6·13호), 할석(7·8호), 판석(11호)로 공통되지 않는다. 2군인 3·4·9·10·12호의 경우 소형(4호), 대형(3·9·12), 초대형(10호)로 구분되지만 바닥시설은 생토(3·4·9호)와 판석(10·12호)로 공통되는 특징은 없다.

이러한 점을 정리해 보면 영천유적 석관묘군의 경우 규모와 출토품, 배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5호 석관묘를 제외하면 장축 방향과 석관 규모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영천유적 석관묘군에서 종적 위계를 반영하는 것은 규모, 부장품, 입지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어떠한 횡적 연계를 반영하는 속성의 조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장축 방향이 다른 1기의 석관묘를 중심으로 5기의 석관묘가 군을 이루는 배치가 확인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5 위의 책, 71쪽, 도면 26을 필자가 편집.

16 위의 책, 77쪽, 도면 31을 전재.

2. 양평 양수리유적 I : 소형석관묘와 소형석개토광묘로 구성된 군집묘

양평 양수리유적 I¹⁷에서는 청동기시대 소형무덤군,¹⁸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수혈유구, 고려시대 건물지·폐기장·수혈 등 총 1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소형무덤군은 총 17기의 무덤이 밀집되어 확인되었다(그림4).¹⁹

소형무덤군은 장축을 남-북으로 하는 장방형계 수혈 유구의 서북 모서리에 밀집되어 분포하는데, 수혈 유구는 조사 경계에 맞물려 있어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졌기에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방형계의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된다. 각 무덤은 10~20cm 간격을 두고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축조 방식에 따라 천석을 이용해서 네 벽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은 I형식(소형석관묘)과 소형 수혈 위에 개석만 덮은 II형식(소형석개토광묘)으로 구분된다. I형식이 9기, II형식이 8기로 각 형식별 유구의 수는 비슷하다(표2). 대부분 길이 20cm 내외, 너비 15cm 내외, 깊이 10~15cm 내외로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소형 석관묘에 비해서도 매우 작다. 각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으며, 장방형계 수혈 유구 내에서 삼각만입축, 석제장식구, 미완성 반월형석도가 출토되었을 뿐이다.

17 유태용·강아히·정동현·이민정·원소연·지혜·문문희, 『양평 양수리유적 I 양평 양수리 579-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표본·발굴조사 보고서』(오산: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18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소형석실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넓적한 천석으로 만든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로 구성된 무덤군이기에 이 글에서는 ‘소형무덤군’으로 칭했다.

19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20기 이상의 무덤이 확인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양평 양수리유적 I의 경우, 명확하게 소형석관묘과 소형석개토광묘의 공존이 확인되는 드문 유적이기에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20 유태용 외, 앞의 책(2016), 50쪽, 도면 6 필자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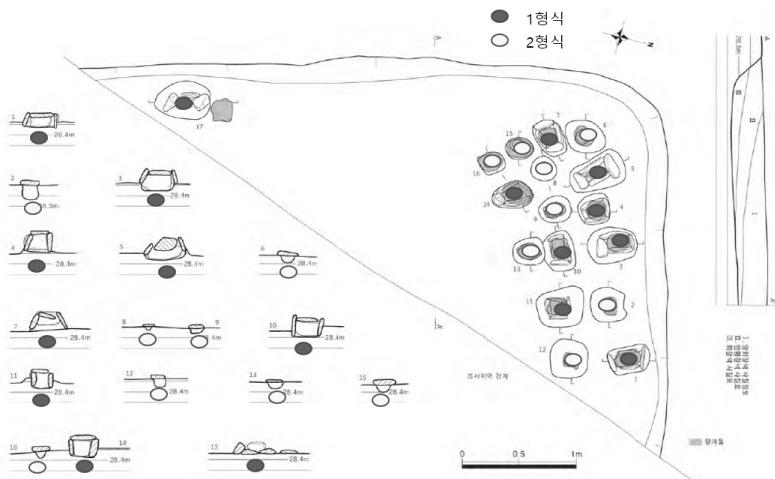


그림4-양수리유적 I 소형 무덤군²⁰

표2-양수리유적 I 소형 무덤군 속성표

(단위: cm)

유구 번호	형식	제원			유구 번호	형식	제원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	I	24	12	12	10	I	20	14	16
2	II	13	13	14	11	I	15	14	13
3	I	22	10	15	12	II	12	10	8
4	I	16	12	17	13	II	18	14	9
5	I	36	13	22	14	I	19	13	15
6	II	16	15	7	15	II	15	12	7
7	I	18	12	15	16	II	13	9	7
8	II	9	5	5	17	I	15	12	8
9	II	14	13	5					

소형무덤군은 개별 무덤의 배치 양상으로 보아 동시점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I 형식과 II 형식 각 무덤의 개석은 약 10cm 정도의 레벨 차이가 있어, 만약 I 형식의 개석이 위치한 레벨이 석관묘 조성 당시의 생활면이었다면 II 형식은 일단 굴광이 아니라 이단 굴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면상으로 보면 I 형식인 10호와 II 형식인 13호가 중복되어 있는데, 13호가 후행한다. 그러나 굴광선만 일부 중복된 것으로 선행의 10호 무덤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13호 무덤을 조성했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림4에서 보면 I 형식과 II 형식이 한 쌍을 이루고 있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그러한 배치 양상은 조금씩 흐트러진다. 또한 I 형식과 II 형식의 개별 분포는 특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렵기에, I 형식과 II 형식 양쪽을 모두 고려한 배치로 생각된다. 보고서에서는 유구들이 다른 곳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소형 석관묘보다 훨씬 작고 내부 퇴적토의 성분 분석에서도 인(燐) 성분이 매우 소량으로 검출되었으며, 내부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무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²¹ 그러나 양수리유적 I 의 소형 무덤은 이차장의 무덤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며, 또한 정연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의 무덤 형식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혼재되어 있기에 단순한 이차장이 아니라 합장을 의도한 재장의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야요이시대의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5).²²

동일본의 야요이시대 중기에 확인되는 재장묘는 하나의 토광에 다수의 재장호를 매립한 무덤 형식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합장을 위한 의도적 재장 방식으로, 합장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대 구성원,²³ 묘역의 수리 등으로 인

21 유태용 외, 앞의 책(2016), 144쪽.

22 石川日出志, 「a. 墓制」, 『日本の考古學 上』(學生社, 2005), 151쪽, 도 10 전재.

23 山田康弘, 「縄文時代における部分骨合葬」,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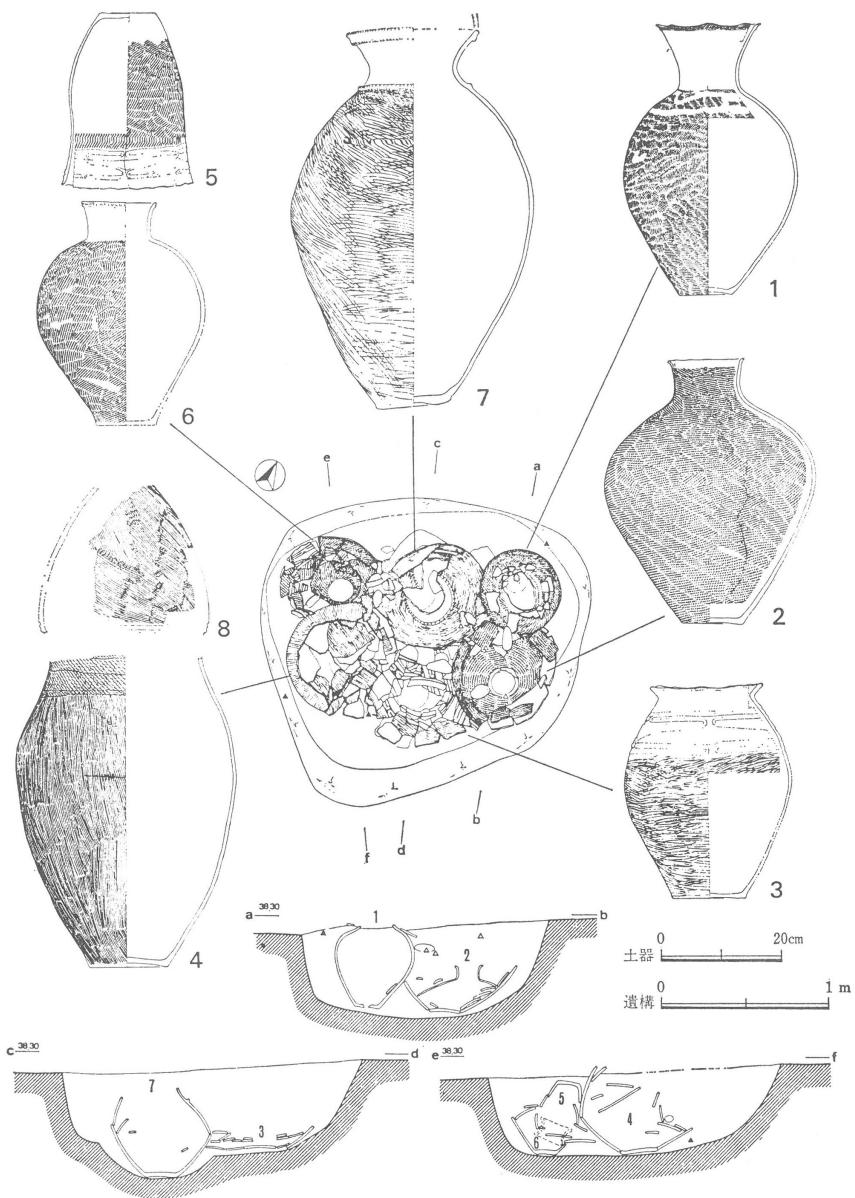


그림5-야요이시대 재장묘 무라지리유적(村尻遺蹟) 第91號土壤

해 기존에 매장된 인골의 정리²⁴ 등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작 농경의 확산과 더불어 농경지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는 동일본의 야요이시대 중기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출자가 서로 다른 복수의 집단이 이주 등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생기는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장송 의례로 보기도 한다.²⁵ 즉, 출자가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이 선조의 인골 일부를 함께 매장함으로써, 집단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수리유적 I의 소형무덤군은 이러한 전제에 매우 잘 들어맞는다. 합장을 위한 공간인 장방형계의 수혈 유구를 조성하고, 수혈의 한쪽 부분에 두 가지 형식의 석관을 정연하게 배치했다. 석관 및 석개토광묘 모두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차장, 아마 이미 기존에 매장되었던 인골의 일부만을 다시 매장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장방형 수혈 유구의 나머지 부분이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조사된 부분만으로 보았을 때는 수혈 유구의 다른 부분은 어떠한 시설도 없어 의례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의 재장묘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양수리 지역에 서로 다른 계통의 두 집단이 새롭게 정착하면서 상호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된 의도적인 합장 유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양수리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유적이 확인된 양수리 지역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현재는 팔당댐 건설로 인해 일부가 수몰되면서 하중도

24 設樂博己, 「壺棺再葬墓の基礎的研究」,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0(1993).

25 石川日出志, 앞의 논문(2005).



그림6-양수리유적 I 주변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가 되어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개발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발굴이 실시되어 많은 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양수리유적 I 을 중심으로 약 2km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

다. 유적이 조사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략 3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발 정도에 따른 발굴 조사 범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6).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된다. 주거지는 장방형 또는 소형 방형 등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형식이다. 출토 유물은 대부분의 유적에서 동일하게 공렬토기, 호형토기, 흥도, 일체형 석촉 등으로 주거지 형태와 마찬가지로 전기 후반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적 간에 주거지 형식이나 유물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출토되는 공렬토기의 투공 방식이 1군의 경우 내→외 반투공이 많으나, 2, 3군은 외→내 반투공이 약간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것이 출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유구, 유물에서는 소형 무덤군에서 보이는 듯한 명확한 구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방형 또는 소형 방형의 주거지에 공렬토기, 호형토기, 흥도, 일체형석촉 등은 북한강 유역 전체에 공통되는 것으로, 만약 양수리 지역으로 이주해 온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출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북한강 유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물질문화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역은 조기, 전기 전반의 고고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기에, 청동기시대 들어와 아직 사람들에 의해 점유되지 않았던 곳에 전기 후반이 되어 새로운 집단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재장합장묘를 조성한 것이 양수리유적 I의 소형무덤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혼계의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무덤군 내에서 종적 위계의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라는 무덤 형식의 차이가 출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령 명천동유적: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로 구성된 군집묘

보령 명천동유적²⁶에서는 구석기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의 유구로는 주거지 70기, 수혈 131기, 소성유 구 3기, 지상건물지 17기, 구상유구 7기, 석관묘 35기, 석개토광묘 13기, 방형유구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전기의 세장방형 2기와 함께 송국리형주거지 64기, 방형 주거지 4기로, 중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무덤은 유적의 서측 구릉 상부 평坦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지와 수혈은 유적의 남측과 북서측에 밀집되어 있어 주거와 묘역이 구분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그림7). 무덤은 모두 중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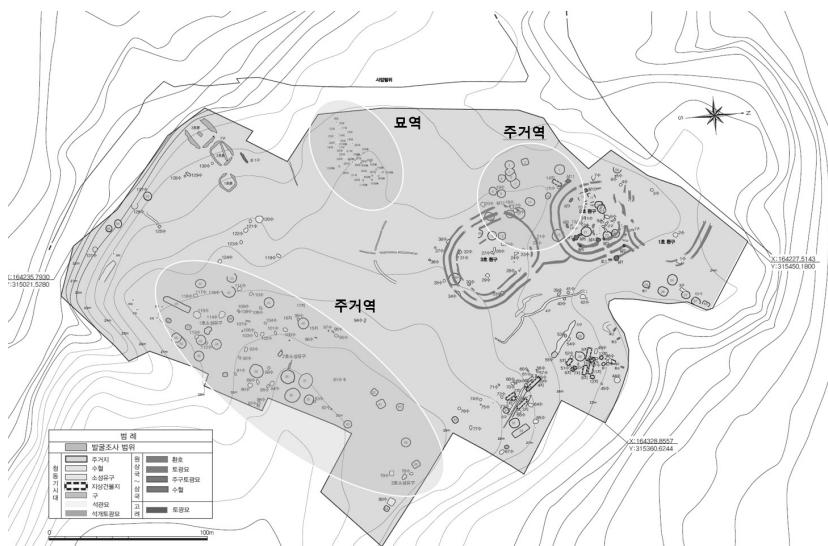


그림7-명천동유적 유구 분포도²⁷

26 이영철·정인성·정일·이혜연·문지연·이정아·강명석·신희창, 『보령 명천동유적』(담당: 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27 위의 책, 71쪽, 도 1을 필자가 편집.

표3-명천동유적 석관묘 속성표

(단위: cm)

형식	호수	개석 (단)	석관			축조 형식	바닥	요강	묘광		장축	유물
			장	단	깊이				장	단		
석 관 묘	9호	1	111	37	26	천석	점토다짐	동	144	86	직교	
	10호	1	111	27	26	할석	생토	서	153	70	직교	
	11호	3	115	32	42	할석	생토	동	150	78	직교	
	12호	3	115	26	25	판상할석	생토	서	136	67	직교	
	13호	3	111	83	30	판상할석	생토	동	136	63	직교	석촉
	14호	3	119	27	30	판상할석	생토	서	154	80	직교	
	15호	1	92	36	27	천석	생토	서	118	66	직교	
	16호		61	36	10	할석	할석	없음	96	81	직교	
	17호	2	74	31	25	판상할석	할석	없음	99	70	직교	홍도
	18호	1	59	18	25	판상할석	생토	동	102	49	직교	
	19호	1	104	26	34	판상할석	생토	없음	145	79	직교	
	20호		118	42	41	판석	생토	동	150	78	직교	
	21호	2	96	36	34	판상할석	생토	서	136	73	직교	
	22호	1	51	30	30	천석	점토다짐	서	101	69	직교	
	23호	1	71	22	23	천석	생토	없음	94	50	직교	
	24호	1	150	51	31	판상할석	생토	없음	185	104	평행	일단병식 석검1
	25호	2	115	48	35	판상할석	생토	서	165	100	직교	
	26호		65	62	44	판상할석	천석	없음	106	90	직교	발, 관옥
	27호	1	98	36	33	천석	생토	동	144	84	직교	
	28호	1	35	16	17	천석	생토	없음	65	49	직교	
	29호		83	31	38	판상할석	생토	없음	110	38	평행	
	30호		78	28	14	판상할석	생토	없음	103	57	직교	
	31호	4	129	43	28	판석	생토	서	140	71	직교	
	32호	3	116	48	30	판상할석	생토	서	167	100	직교	
	33호	1	126	42	39	판상할석	생토	서	141	58	직교	일단병식 석검1
	34호	1	58	27	27	천석	생토	없음	81	36	직교	
	35호	3	96	47	35	판석	생토	동	138	77	직교	

주거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천동유적에서 확인된 무덤은 석관묘 35기, 석개토광묘 13기로 총 48기에 달하지만, 8기의 석관묘는 묘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어, 묘역에 군집을 이루는 무덤은 석관묘 27기, 석개토광묘 13기로 총 40기이다(표3, 표4). 묘역은 주거역과 분리되어 약 50×20m의 범위로, 석관묘가 묘역 전체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반면, 석개토광묘는 사면 위쪽에만 석관묘와 혼재되어 분포한다.

석관묘의 규모는 장축 35~150cm 내외로, 신전장이 가능한 170cm 이상의 초대형 무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축 1m 미만의 소형이 14기로, 27기의 석관묘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형과 대형에서는 요갱의 유무와 출토 유물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석관묘의 바닥시설은 27기 중 점토다짐을 한 것이 2기, 천석 및 할석 등 석재를 사용한 것이 3기로 대부분은 생토면을 그대로 바닥으로 사용했다. 이 중 바닥에 석재를 사용한 것은 모두 1m 미만의 소형에만 한정된다.

명천동 석관묘의 특징은 요갱의 유무이다. 27기의 석관묘 중 17기에 요갱이 설치되었는데, 소형 석관묘 14기 중에는 6기(43%)에 요갱이 설치되어 있지만, 13기의 대형 석관묘에는 11기(85%)에 요갱이 설치되어 있어, 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부장품은 일단 병식석검이 대형의 석관묘 2기에서 출토되었는데, 두 기 모두 바닥은 그대로 생토를 사용했고 요갱이 설치된 것과 설치되지 않은 것이 각 1기씩으로 요갱의 유무와 부장품은 관련이 없다.

석개토광묘는 대부분의 속성이 석관묘와 유사하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이단굴광을 포함해도 장축 46~143cm로 석관묘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m를 경계로 소형은 6기, 대형은 7기로 비슷한 수이며, 바닥은 모두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요갱은 13기의 석개토광묘 중 8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형 석개토광묘 6기 중에는 2기(33%)에만, 대형 석개토광묘 7기

표4-명천동유적 석개토광묘 속성표

(단위: cm)

형식	호수	굴광 (단)	개석 (단)	묘광			바닥	요강	장축	유물
				장	단	깊이				
석 개 토 광 묘	1호	2	1	82	51		생토	없음	직교	
				46	26	13				
	2호	1	1	100	60	44	생토	없음	직교	
	3호	1	2	125	52	29	생토	없음	평행	
	4호	2	2	90	53		생토	없음	직교	
				63	34	9				
	5호	2	1	132	75		생토	없음	평행	
				72	40	22				
	6호	1	1	111	41	20	생토	남	직교	
	7호	2	1	108	55		생토	남서 (장벽)	직교	
				95	44	33				
	8호	2	4	122	59		생토	동	직교	
				103	45	25				
	9호	1	1	94	72	36	생토	북	평행	
	10호	2	3	143	71		생토	서	직교	
				141	45	48				
	11호	1	1	134	48	33	생토	서	직교	
	12호	2	1	134	78		생토	북서	평행	
				112	47	84				
	13호	1	1	118	52	32	생토	서	직교	일단병식 석검1

중에는 6기(86%)에서 확인되어, 석관묘와 마찬가지로 주로 대형의 무덤에 요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병식석검이부장된 무덤이 한 기 확인되었는데, 대형의 규모에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사용하고 요강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석관묘와 유사하다. 대신 일단병식석검과는 다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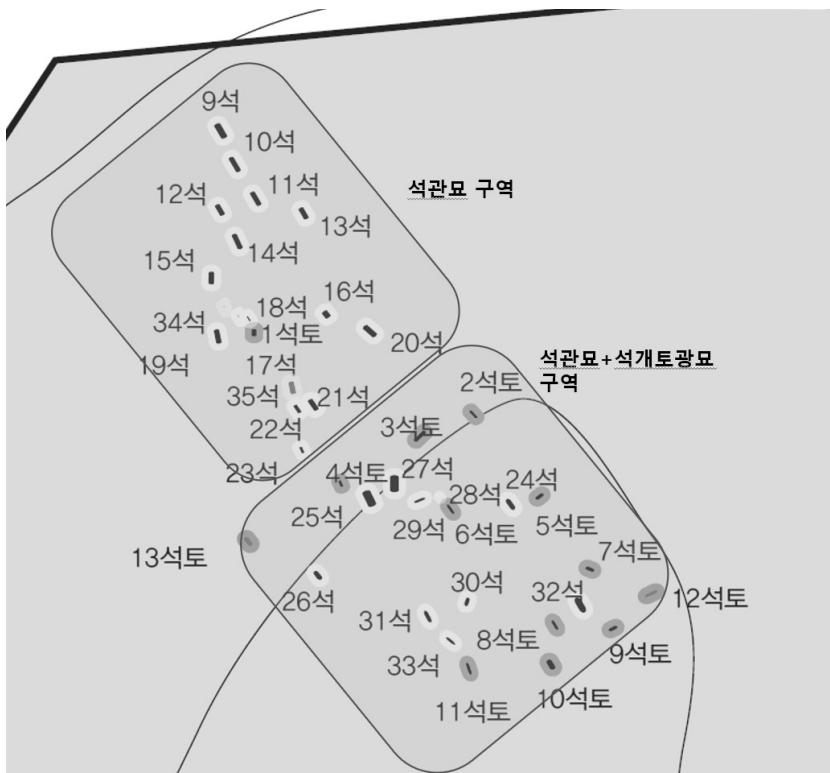


그림8-명천동유적 묘역의 분묘 분포²⁸

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옥이 부장된 26호 석관의 경우, 장축 65cm의 소형에 바닥은 할석을 깐 것으로, 일단병식석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상을 살펴보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규모, 바닥시설, 요강의 유무, 부장품 등에서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림8>에서 볼 수 있듯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구분되는 지점은 무덤의 배치와 장축 방향이다.

28 위의 책, 71쪽, 도 1을 필자가 편집.

묘역은 석관묘로만 이루어진 구역과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되어 있는 구역으로 구분된다. 석관묘만 조성되어 있는 구역은 규모에 따른 요건의 유무만이 차이를 보일 뿐 다른 속성의 조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 소형, 대형의 규모 차이에 따른 요건의 유무 등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에서 공통된다. 또한 대형에서 일단병식 석검이 부장된다는 점 역시 공통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묘제의 형식만이 다를 뿐 나머지 속성, 심지어는 종적 위계의 대표적인 증거인 마제석검의 부장 역시 모두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석관묘와 석개토광묘의 묘제 형식은 종적 위계와는 다른 어떠한 수평적 관계, 예를 들면 출자의 차이 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무덤이 등고선과 직교하여 조성되어 있는데, 석관묘 중 2기(24·29호), 석개토광묘 중 4기(3·5·9·12호)만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비율로 보면 27기의 석관묘의 7%(27기 중 2기)만이 장축 방향을 달리하지만, 석개토광묘는 31%(13기 중 4기)로, 석관묘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많다. 그리고 장축방향을 달리하는 석관묘, 석개토광묘 모두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되어 있는 구역에 조성되었으며, 일단병식석검(24·33호 석관묘, 13호 석개토광묘)과 관옥(26호 석관묘)이 출토된 무덤 역시 모두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된 구역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석관묘로만 무덤을 조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출자가 다른 집단이 추가되면서 각 집단의 출자에 따른 묘제의 구분, 즉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일 묘역에 무덤을 조성했고, 석검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모두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집단 내 종적 위계와 출자의 차이는 무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논산 마전리유적 C지구: 석관묘, 석개토광묘와 옹관묘로 구성된 군집묘

마전리유적 C지구²⁹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석관묘 22기, 석개토광묘 9기, 옹관묘 8기 등 총 39기 무덤과 수전, 밭 등이 조사되었다. 무덤은 주거지와 구역을 달리하여 유적의 북동쪽 구릉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9).

마전리유적 C지구는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의 송국리형 묘제가 중복 없이 밀집되어 분포하는 곳으로, 기존의 군집묘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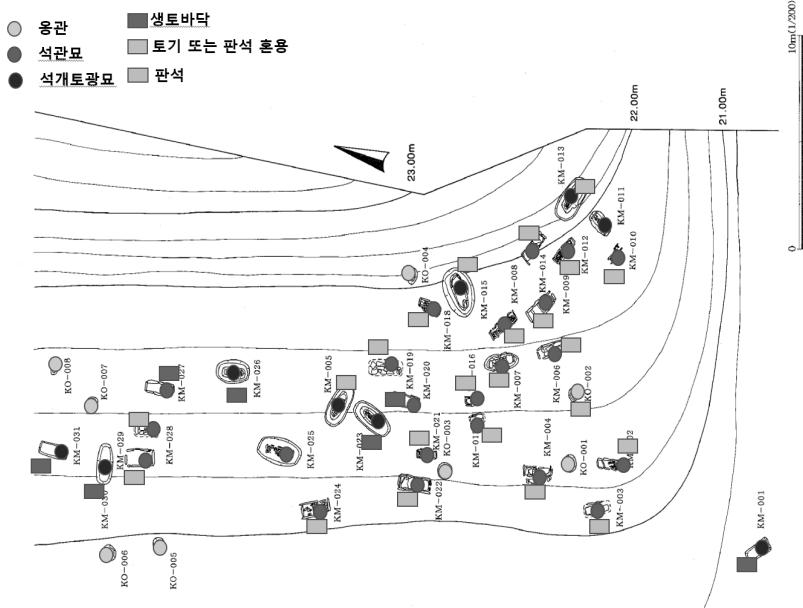


그림9-마전리유적 C지구 무덤 배지도³⁰

29 이홍종·박성희·이희진, 『마전리유적 C지구』(충남: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30 위의 책, 6쪽, 도면 4를 필자가 편집.

표5-마전리유적 C지구 석관묘 속성표

(단위: cm)

형식	유구 번호	개석 (단)	석관			축조 형식	바닥	요강	묘광		장축	유물
			장	단	깊이				장	단		
석 관 묘	2	1단	134	45	39	판석	토기	유	128	48	평행	
	3	1단				판석	판석	무			평행	석검1, 석촉2
	4	1단	156	43	49	판석	판석	무	174	68	평행	석촉1
	6	1단	141	56	52	판석	판석	무	150	79	평행	
	7					판석	판석	무	173	70	평행	석검1
	8	1단	149	38	50	판석	토기	유	154	40	평행	석검1
	9	1단	158	56	57	판석	토/판	무	164	71	평행	석검1
	10	1단	89	23	12	판석	토기	무	92	30	평행	
	12	1단	144	48	44	판석	토기	유	148	51	평행	
	14	1단	147	48	38	판석	판석	무	152	51	평행	
	16	1단	86	32	26	판석	판석	무	93	41	평행	
	17	1단				판석	판석	무			평행	
	18	1단	130	36	42	판석	토/판	유	140	48	평행	
	19	1단				판석	판석	무			평행	
	20	1단	147	48	45	판석	생토	무	146	43	평행	유경식석검1
	21	1단	96	33	30	판석	토기	무	103	44	평행	
	22	1단	152	55	41	판석	판석	무	194	81	평행	편인석부1, 석촉3
	24	1단	151	58	38	판석	토/판	유	164	76	평행	
	25	1단	142	43	48	판석	토기	무	150	58	평행	
	27	1단	143	56	40	판석	생토	무	150	59	평행	석촉4
	28	1단	118	57	31	판석	판석	무			평행	
	29	1단	148	77	40	판석	생토	무	153	89	평행	

기도 했다.³¹ 22기의 석관묘 중, 1m 미만의 소형은 3기로 1~1.5m 내외의 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5). 바닥시설의 경우, 판석, 토기, 토기/판석,

31 김범철·박주영, 앞의 논문(2012); 우정연, 앞의 논문(2011a).

생토면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판석 10기, 토기 6기, 생토 3기, 토기/판석 3기로 판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형 석관묘 3기의 바닥시설은 판석 1기, 토기 2기로 규모와 바닥시설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요갱이 설치된 것은 5기뿐으로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요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두 대형이다. 또한 석검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는 무덤은 모두 대형으로, 바닥은 판석인 것이 많으나, 바닥에 토기를 깔거나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석관묘에서도 석축, 석검 등이 출토되어 정연한 속성 조합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석개토광묘의 양상은 석관묘와는 다르다(표6). 규모로 본다면 석개토광묘는 모두 석관묘에 비해 대형이며, 바닥시설은 토기(6기)와 생토(3기)로 구분되는데 바닥에 토기를 깐 것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석관묘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판석 바닥시설이 석개토광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축조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갱은 3기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장축 200cm 이상의 대형에서만 확인된다. 마제석검은 1호와 5호 석개토광묘에서 출토되는데, 1호는 일단굴광에 요갱이 설치되지 않고,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으며, 5호는 이단굴광에 요갱이 설치되었고,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어 바닥시설로 토기를 깔았다는 점 외에 공통되는 속성 조합은 없다. 옹관묘는 묘역의 외곽에 분포하고 있어 석관묘, 석개토광묘와 동일 수준의 묘제는 아니었으며 보조적인 혹은 특수한 용도의 묘제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7).

마전리유적 C지구의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요갱, 바닥시설 등의 속성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그 양상은 서로 다르다. 석관묘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확인되는 반면, 석개토광묘는 대형만 조성되었는데, 대형에서만 요갱이 확인된다는 점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공통된다. 바닥시설 역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판석 바닥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석개토광묘는 원래 판

표6-마전리유적 C지구 석개토광묘 속성표

(단위: cm)

형식	유구 번호	굴광	개석 (단)	묘광			바닥	요강	장축	유물
				장	단	깊이				
석 개 토 광 묘	1	1	1단	164	60	40	토기	무	평행	석검1
	5	2	1단	236	101	30	토기	유	직교	석검1
				148	53					
	11	1	1단	130	68	37	토기	무	직교	
	13	2	1단	219	112	34	토기	유	평행	
				147	73					
	15	2	1단	225	150	50	생토	유	직교	
				146	56					
	23	2	1단	223	121	18	토기	무	직교	
				141	64					
	26	2	1단	169	111	25	토기	무	평행	
				136	48					
	30	1	1단	190	72	24	생토	무	직교	
	31	1	1단	152	64	32	생토	무	평행	

표7-마전리유적 C지구 옹관묘 속성표

(단위: cm)

형식	유구 번호	옹관 형태	묘광			저부투공	유물
			장	단	깊이		
옹관묘	1	석개사치	92	82	53	유	관옥 48
	2	토개사치	62.5	49	43	유	
	3	토개사치	70	63	49	유	묘광바닥 판석
	4	토개사치	75	56.5	84	무	
	5	석개직치	41	40	44	유	
	6	석개직치	51	50	78	유	
	7	석개직치	48	45	46	유	
	8	(석개직치)	(30)	(17)	(14)	유	

석 바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토기와 생토바닥 중 토기 바닥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공통된다. 마제석검의 부장 역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모두에서 확인된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무덤과 장축 방향을 달리하여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조성한 것은 석개토광묘뿐이다.

즉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보령 명천동유적과 동일하지만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전체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전리유적 C지구의 경우, 혼계의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횡적 연계의 반영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라는 묘제의 선택, 그리고 석개토광묘 중 등고선과 직교하는 축조 방식뿐이다.

5. 진주 초당동유적: 연접묘로 구성된 군집묘

진주 초당동유적³²에서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 중 청동기시대의 유구로는 주거지 53기, 무덤 22기, 고상건물지 25기, 수혈유구 131기, 구상유구·구획구 65기와 논 등이 조사되었는데, 주거지는 조기와 전기 주거지 34동과 송국리문화단계 주거지 19동이 확인되었다. 무덤은 전기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송국리문화단계의 주거역과 구분되어 3곳에서 묘역이 확인되어, 연대는 중기로 추정된다.

무덤은 대형 원형 묘역 1기, 장방형 묘역 2기, 소형 석관묘 6기, 석관묘 2기, 석개토광묘 3기, 할석묘역시설 1기, 주구석관 1기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연접묘는 총 3군으로 1호와 2호, 3호와 4호, 7호와 8호가

32 김형곤·문백성·박용근·정혜정·권영호,『진주 초장동유적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유적』(김해: 동서문물연구원, 2017).

연접되어 있다. 연접되어 있는 각각의 무덤은 명백하게 기존의 무덤을 인식하고 조성 방식을 참조하여 새로운 무덤을 조성한 것으로, 연접된 무덤의 피장자들이 어떠한 방식이든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초장동유적에서는 각 연접된 무덤들이 속성의 어떠한 방식으로 속성의 공유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한다(그림10, 표8).

1호묘는 초장동 무덤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26.8 \times 25.2\text{m}$ 의 원형의 묘역으로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축조되어 삭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묘역은 기저부를 정지하고 현재 남아 있는 높이인 1.4m 이상으로 성토한 후 할석으로 원형의 묘역을 구획하고 묘역 내부는 할석을 부석했다. 묘역 시설에서는 다량의 무문토기편과 지석이 확인되었다. 2호 묘는 1호 묘의 묘역 동측에 연접하여 묘역시설을 축조한 것으로, 1호의 묘역시설 외곽 구획석에 덧대어 할석으로 묘역을 구획했기에 축조 순서는 1호→2호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묘역은 일부만 잔존하지만 평면형태 원형으로 추정되며 매장주체부는 이단 굴광의 석관묘이다. 3중으로 개석을 덮었으며, 석관은 판석으로 축조되었고 바닥 역시 판석을 깔았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호 묘 주변에는 2호 외에도 1호 묘를 둘러싸듯이 9호, 10호, 11호, 12호의 소형 석관묘가 배치되어 있다(그림11). 9호는 $66 \times 28 \times 22\text{cm}$ 의 소형으로 판석을 이용해 축조했으며 바닥에도 판석을 깔았다. 내부에서는 천하석제 옥 1점이 출토되었다. 10호 역시 소형의 석관묘로, 판석으로 축조되었으며, $58 \times 19 \times 17\text{cm}$ 의 규모에 바닥은 판석을 깔았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1호 역시 $63 \times 25 \times 24\text{cm}$ 의 소형으로 판석으로 축조했으며 바닥에도 판석을 깔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2호 역시 $95 \times 26 \times 19\text{cm}$ 의 소형에 판석으로 축조했으며 바닥에도 판석을 깔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이렇듯 1호를 중심으로 배치된 4기의 석관묘와 2호는 축조 방식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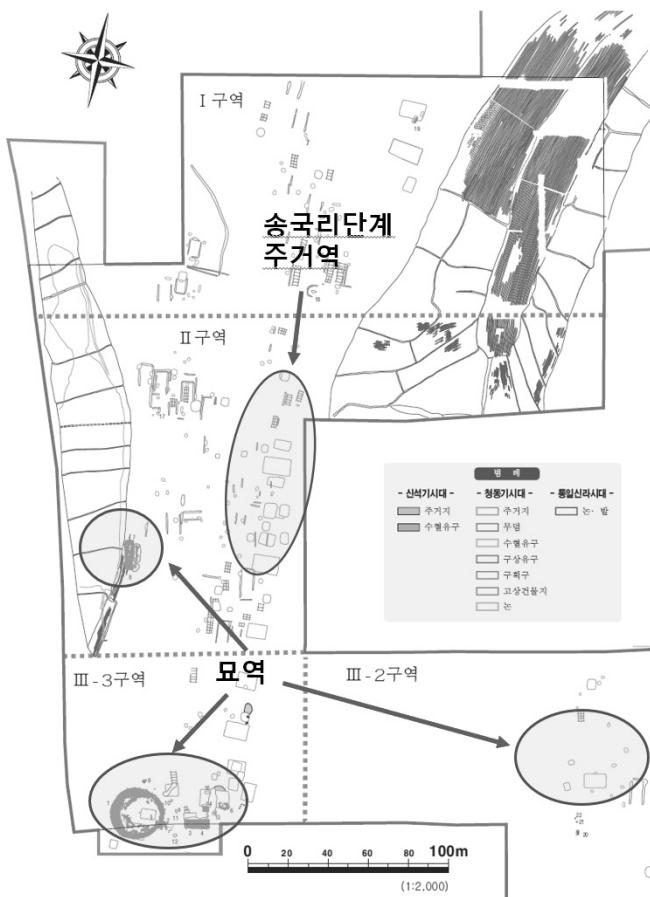


그림10-초장동유적III³³

서로 다르기에 2호가 1호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호묘와 2호묘가 연접되어 있기는 하지만 묘역의 규모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3 위의 책, 2쪽, 도면 1을 필자가 편집.

표8-초장동유적 연접묘 속성표

호수	묘역(m)			매장주체부(cm)						비고
	형식	장	단	형식	장	단	깊이	바닥 시설	유물	
1호	원형	26.8	25.2	없음						토기, 지석(묘역)
2호	원형 (추)	4	4	이단굴 광석관	160	30	34	판석	없음	
3호	장방형	6.4	3.2	석관	175	44	34	판석	석총2	북측구 (적색마연호)
4호	장방형	5.7	4.3~4.7	석관	148	33	25	판석		묘역(적색마연호, 편평편인석부)
7호	장방형	10.1	3.6~4.1	석개토광 묘	160	44	36	(추)목관	없음	
8호	장방형	3.3	3.3	이단굴 광석관	180	37	40		석검1, 석총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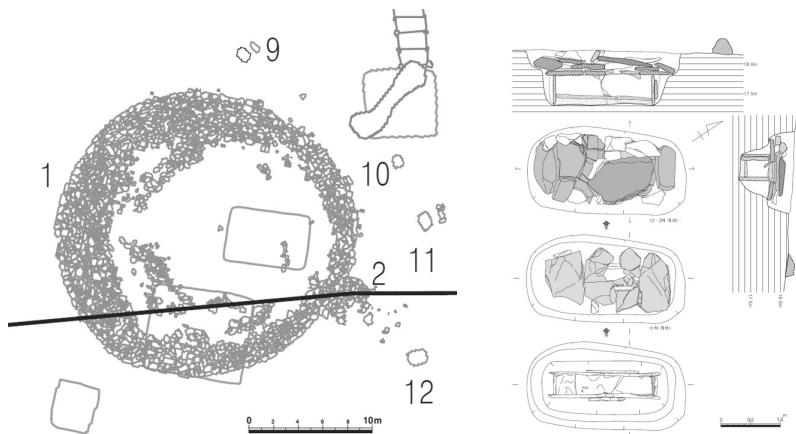


그림11-초장동유적 12호 연접묘 및 9~12호 석관묘와 2호 묘 매장주체부

연접되어 축조된 3호와 4호는 3호가 먼저 만들어지고 4호가 후에 축조되었다. 3호의 경우 6.4×4.2 m의 장방형 묘역으로, 할석을 세워서 묘역 외곽을 만들고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후 묘역 전체에 할석을 깔고 그 위에 상석을 놓았다. 매장주체부는 석관으로 규모는 175×44 cm에 판석으로 축조되었으며 바닥에는 판석을 깔았다. 석관 내부에서는 석축 2점이 출토되었다. 4호는 3호와 유사하게 $5.7 \times 4.3 \sim 4.4$ m의 규모로, 묘역의 외곽을 할석으로 평적하여 구획하고,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올려 놓은 후 묘역 내를 할석으로 채웠다. 매장주체부는 148×38 cm의 판석으로 축조한 석관으로, 바닥에도 판석을 깔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호와 4호에서 공통되는 것은 유사한 규모의 장방형묘역에 매장주체부가 석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묘역 축조방식과 석관 내 출토 유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호의 경우 할석을 세워서 외곽 구획 → 매장주체부 조성 → 묘역 내 할석 부석 → 상석 설치의 순이지만, 4호는 할석 평적으로 외곽 구획 → 매장주체부 조성 → 상석 설치 → 묘역 내 할석 부석의 순으로, 외곽 구획 방식과 묘역 내 할석 부석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 또한 3호와 4호 매장주체부는 규모와 축조방식은 유사하지만 부장품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두 기의 무덤은 연접하여 축조되었고 유사한 규모의 묘역에 매장주체부 형식 역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피장자들은 종적 위계에서는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의 무덤에서 구분되는 축조 순서의 차이와 ‘석축’의 부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7호와 8호 연접묘는 3·4호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선죽인 7호는 $10.1 \times 3.6 \sim 4.1$ m의 장방형 묘역에 할석으로 구획했으며, 매장주체부 조성 후 묘역 내부에 할석을 깔고 상석을 설치했다. 매장주체부는 석개토광묘로, 목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정 목관의 크기는 160×44 cm에 출토유물은 없다. 후죽인 8호의 경우, 묘역은 7호에 비해 매우 소규모로 3.3×3.3 m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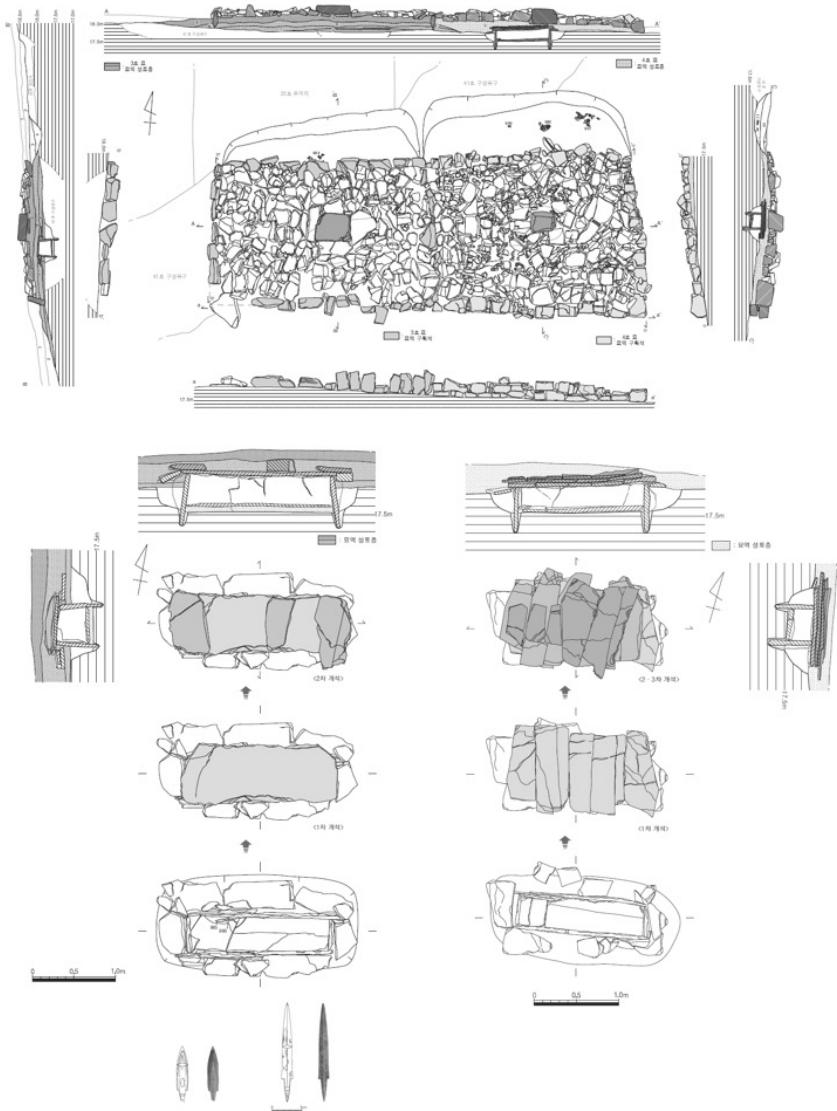


그림12-초장동유적 34호 연접묘(위) 및 3호 묘 매장주체부와 출토 석축(아래 왼쪽),
4호 매장주체부(아래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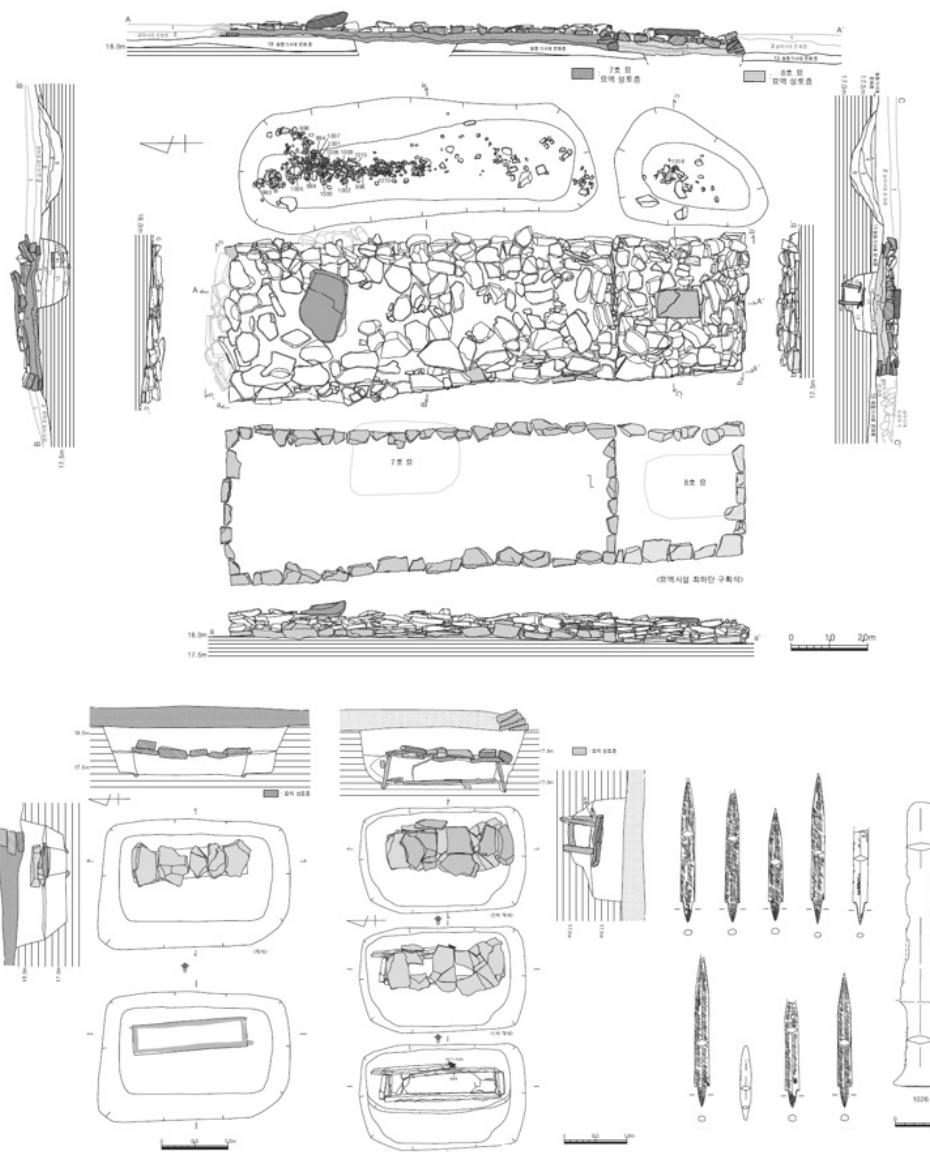


그림13-초장동유적 7·8호 연접묘(위) 및 7호 묘 매장주체부(아래 왼쪽)과 8호 매장 주체부(아래 가운데), 출토 석축 및 석검(아래 오른쪽)

과하다. 묘역 조성 방식은 7호와 동일하게 할석으로 구획한 후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후 묘역 내부에 할석을 깔고 상석을 올려놓았다. 매장주체부는 7호와 달리 이단굴광의 석관묘로 판석으로 축조되었으며 규모는 180×37cm에 바닥에도 판석을 깔았다. 석관 내부에서는 석검 1점과 석축 9점이 출토되었다.

7호와 8호는 장방형의 묘역에 매장주체부를 만든 후 묘역 내 할석을 깔고 상석을 올려놓았다는 축조 방식에서는 공통되지만, 묘역의 규모와 매장주체부 형식, 출토유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종적 위계의 증거로 이야기되는 묘역의 규모와 석검의 출토 양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을 혼계의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연접’해 무덤을 축조한다는 횡적 연계가 종적 위계보다 우선시되어 무덤이 축조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IV.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보이는 혼계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속성의 조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군집묘는 동일한 묘제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상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석관묘만으로 구성된 나주 영천유적의 경우, 입지와 규모, 출토품에서 차이를 보이는 1기의 석관묘는 종적 위계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돌출되는 1기의 무덤을 제외하면 나머지 무덤에서는 장축 방향이 다른 1기를 중심으로 5기의 석관묘가 밀집되어 있는 배치의 차이를 제외하면 규모, 요강, 바

탁시설 등에서 특정한 속성의 공통적인 조합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평 양수리유적 I의 경우, 소형 석관묘와 소형 석개토광묘의 정연한 배치는 합장을 의도한 재장으로 보이며, 규모나 부장품, 배치상에서 돌출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개별 무덤은 동일한 위계에 위치하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라는 묘제의 차이만이 확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라는 묘제의 형식만이 횡적 연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로 구성된 보령 명천동유적의 경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대부분의 속성, 특히 종적 위계를 반영하는 석검의 부장까지 공통된다. 묘역은 석관묘만 조성된 구역과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되어 있는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장축 방향을 달리하는 무덤과 석검과 관옥 등이 부장된 무덤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혼재된 구역에서만 확인된다. 이것은 결국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동일 위계에 속하며, 특정한 횡적 연계, 예를 들어 출자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무덤 형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석관묘, 석개토광묘, 응관묘 등 송국리형묘제의 모든 종류가 확인되는 논산 마전리유적 C지구의 경우, 응관묘는 이질적인 장법으로 외곽에 위치하는 등 부수적인 묘제로 추정된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전체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요강, 바닥 시설, 부장품 등에 있어서 공통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석관묘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확인되는 반면, 석개토광묘는 대형만 확인되고, 대부분의 무덤과 달리 장축 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조성된 것은 석개토광묘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주 초장동유적의 경우, 모두 3군의 연접묘가 확인되는데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1호와 2호의 경우, 압도적 규모의 1호에 연접되어 축조된 2호는 매우 소규모로 동일 위계의 무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호와 4호, 7호와 8호의 경우, 각각 두 기의 묘역 지석묘가 하나의 세장방형 묘역을 이루는 연접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군의 개별 무덤의 양상은 전혀 다

르다. 3호와 4호는 묘역의 규모가 유사하고 매장주체부도 석관묘로 동일하지만 묘역 축조 방식과 부장품에 서로 차이가 있다. 7호와 8호의 경우, 장방형의 묘역 축조 방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7호가 8호에 비해 3배 이상 넓은 묘역을 가지고 있으며 매장주체부의 형식 또한 서로 다르다. 더욱이 묘역이 더 소규모인 8호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석검 1점과 석축 9점이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접묘는 연접묘군 간의 종적 위계는 인정되어도 연접된 무덤들은 동일한 위계에 속한 피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7호와 8호 연접묘는 그 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각 무덤은 묘역의 규모와 부장품에서 차이가 나며, 묘역의 크기와 부장품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면 종적 위계를 나타내는 각각의 속성 조합은 유적 또는 무덤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까지 종적인 위계를 반영한다고 여겨졌던 석검과 무덤의 규모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다른 속성은 모두 공유하면서 배치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의 조합을 모두 종적 위계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무덤의 규모와 매장 자세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무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50~200cm 정도이지만, 유적에 따라 어떤 규모의 무덤이 주로 축조되었는지는 다양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영천유적의 석관묘는 100~170cm 내외로 소형은 확인되지 않지만, 명천동유적의 석관묘는 35~150cm 내외이며 석개토광묘 역시 비슷한 규모로 소형에서 대형까지 모두 확인된다. 마전리유적 C지구의 석관묘는 90~150cm 내외이며 석개토광묘는 150cm 내외의 대형만 확인된다. 이렇게 유적별로 무덤 규모 분포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무덤의 규모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장자세에 따른 매장주체부의 크기이다. 물론 매장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골 출토 사례가 매우 적어 단연할 수는 없지만 기준 자료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

우선 청동기시대는 아니지만 가덕도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인골의 경우 추정 신장은 남성 $158.4 \pm 3.25\text{cm}$, 여성 $146.7 \pm 6.46\text{cm}$ 이다.³⁴ 신석기시대의 사람과 청동기시대 사람의 신장이 유사하다고 본다면 매장주체부의 규모가 적어도 170cm 이상은 되어야 신전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강 유역에서 굴장으로 추정되는 사천 본촌리 가2호 석관묘의 크기는 $161 \times 55 \times 48\text{cm}$,³⁵ 옥방 4지구 4호 석관묘는 $128 \times 37 \times 20\text{cm}$ ³⁶의 크기로, 이러한 수치들은 본다면 100cm 미만은 이차장, 100~170cm 미만은 굴장, 170cm 이상은 신전장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신장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장주체부의 크기가 종족 위계가 아닌 매장 자세를 반영한다고 전제하면, 각 유적에서 보이는 무덤 크기의 다양성은 매장 자세의 선택과 관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100cm 미만의 이차장에서 170cm 이상의 신전장까지 모든 매장 자세가 확인되는 유적과 100cm 이상의 굴장과 신전장만이 확인되는 유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매장 자세가 젠더와 관계되었다는 지적³⁷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출자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4 정의도·김상현·신가화,『부산 가덕도 장항유적』(부산: 한국문물연구원, 2014).

35 조영재·송영진·정지선,『사천 본촌리유적』(진주: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36 동의대학교박물관(편),『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선사유적 I』(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37 신석원,『人骨로 본 青銅器時代 葬制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신석원,『인골로 본 청동기시대의 남강유역 사람들』,『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와 의례』(2022).

3. 무덤의 형식: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무덤 형식이지만, 흔히 석개토광묘가 군집묘에서 낮은 점유 비율을 차지하고 석관묘에 비해 출토유물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주요제인 석관묘에 비해 낮은 위계의 무덤으로 인식되었다.³⁸ 물론 석개토광묘만으로 구성된 군집묘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석관묘와 함께 군집을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도 석관묘보다 적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하나의 묘역에 같이 있는 경우, 바닥시설, 요갱의 유무, 심지어는 석검의부장 등까지도 공유한다. 명천동유적처럼 일부 배치에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석관묘와 석개토광묘의 무덤 형식을 종적 위계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종적 위계의 전형적인 증거일 수 있는 규모와 부장품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 서로 다른 두 형식의 묘제는 오히려 동일 위계 수준에서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특정한 횡적 연계에 기준한 무덤 형식의 선택 후 바닥시설, 요갱, 부장품의 속성은 전체 무덤 조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의 혼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단순히 무덤의 규모 차이로 보았던 것을 매장자세, 그리고 위계 차이로 보았던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를 동일 위계에서의

38 김길식, 「부여 송국리 무문토기시대 묘」, 『고고학지』 9(1998); 엄경은, 「無文土器時代 石蓋土壤墓 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선택 문제로 본다면 특정 매장 자세, 특정 무덤의 형식은 특정한 맥락, 즉 횡적 연계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속성을 공유하면서 부장품의 유무로 종적 위계를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보령 명천동유적처럼 석관묘와 석개토광묘처럼 무덤의 전체적인 배치에서는 횡적 연계를 고려한 무덤 형식의 선택과 배치가 우선시되고, 그 내부에서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으로 종적 위계를 나타내는 경우에서 무덤 형식의 선택이, 예를 들어 출자의 차이를 반영하다고 본다면, 명천동유적 조성 집단은 상이한 출자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종적인 위계에서 출자의 차이는 무관했다고 사회 구성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무덤에서 보이는 속성은 종적 위계가 더 우선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검토 결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초장동유적 7호와 8호 연접묘의 경우, 묘역의 축조 방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부장품으로 반영되는 종적 위계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연접묘 축조라는 횡적 연계가 선행된 후, 그 안에서 피장자의 종적 위계가 부장품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많은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돌출되는 규모나 부장품 등 종적 위계를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기 쉬운 일부 속성을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매장 자세, 무덤의 형식 또는 그 외 여러 속성의 조합이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무덤 축조 과정의 다양한 선택지였는지를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신석기시대 가덕도 출토 인골 분석을 근거로 직능에 따른 무덤의 배치를 추정³⁹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인골의 출토가 빈약하고 출토 유물이 적으며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사회적, 생물학적 정보를 얻기 어려운 청동기시대의 무덤에서

39 김범철,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한국신석기학회』 34(2017).

횡적 연계의 구체적 맥락과 그 반영을 구분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당연히 종적 위계 이외의 속성을 모두 횡적 연계의 반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군집묘는 상당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조성된 것으로, 각 무덤이 조성되었을 당시의 횡적 연계가 모두 동일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유사한 속성 조합의 양상이 동일한 맥락을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분묘를 전통적, 보수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양수리유적 I과 같이, 출토 양상으로 보았을 때 합장을 위한 재장의 가능성이 높으며, 무덤 형식 외에는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출자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무덤을 유력자 또는 유력집단의 무덤과 일반인의 무덤으로 단절적으로 구분해 버리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속성의 조합이 횡적 연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결과로 해석해 보는 시각은 청동기시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맷음말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는 여러 시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청동기시대가 위계화된 사회이며, 많은 고고학적 증거, 예를 들어 취락 내 주거지의 규모 및 출토 유물의 차이,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 등은 그러한 사회적 위계

40 김법철, 「분묘자료에 대한 다른 인식: 한국 매장고고학의 변모를 위한 시도」, 『한국상고사학보』 119(2023), 11쪽.

를 반영한다고 보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한 이해도 진전되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청동기시대 사회는 종적인 위계 질서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의 횡적인 연계가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관계는 어떠한 방식이든 물질 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계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군집묘를 검토했다. 그 결과 종적인 위계 구분 없이, 아마도 출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두 가지 형식의 무덤이 합장되어 있는 횡적 연계가 확인되는 사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를 동일한 위계에 있으면서 횡적 연계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축조된 무덤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종적 위계보다 횡적 연계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 매장자세의 차이를 횡적 연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등, 종적 위계 외에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군집묘 등을 확인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많은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무덤 피장자의 생물학적, 사회적 정보를 얻기 어려운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성상,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를 종적으로 서열화되고 위계화된 사회로 규정짓는 시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혼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청동기시대, 더 나아가 한국의 선사시대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1. 논저
고일홍, 「한국 고고학의 고대 국가형성 연구를 위한 일 검토: 유럽 고고학이 제공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고고학』 13-1, 2014.
김길식, 「부여 송국리 무문토기시대 묘」, 『고고학지』 9, 1998.
김범철,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한국신석기학회』 34, 2017.
김범철, 「분묘자료에 대한 다른 인식: 한국 매장고고학의 변모를 위한 시도」, 『한국상고사학보』 119, 2023.
김범철·박주영, 「호서지역 송국리형 분묘의 계층화양상 논의」, 『한국고고학보』 82, 2012.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 2001.
김장석,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2007.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2011.
김형곤·문백성·박용근·정혜정·권영호, 「진주 초장동유적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유적」, 김해: 동서문물연구원, 2017.
동의대학교박물관(편),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선사유적 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배진성, 「분묘 축조 사회의 개시」, 『한국고고학보』 80, 2011.
배진성,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에 대한 보론」, 『호서고고학』 40, 2018.
신석원, 「人骨로 본 青銅器時代 葬制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신석원, 「인골로 본 청동기시대의 남강유역 사람들」,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와 의례』, 2022.
엄경은, 「無文土器時代 石蓋土壤墓 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우정연, 「금강 중류 송국리형 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 2011a.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 2011b.
유태용·강아히·정동현·이민정·원소연·지혜·문문희, 『양평 양수리유적 I 양평 양수리 579-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표본·발굴조사 보고서』, 오산: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이영철·류향미·신원재, 『나주 영천유적』, 광주: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이영철·정인성·정일·이혜연·문지연·이정아·강명석·신희창, 『보령 명천동유적』, 담양군: 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이홍종·박성희·이희진, 『마전리유적 C지구』, 충남: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정의도·김상현·신가화,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부산: 한국문물연구원, 2014.

조영제·송영진·정지선, 『사천 본촌리유적』, 진주: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히라고리 다쓰야,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山田康弘, 「縄文時代における部分骨合葬」,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8, 2013.

設樂博己, 「壺棺再葬墓の基礎的研究」,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50, 1993.

石川日出志, 「再葬墓」, 『祭と墓と装い 弥生文化の研究 8』, 雄山閣, 1987.

石川日出志, 「a. 葬制」,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2005.

국문초록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는 여러 시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청동기시대는 위계화된 사회이며, 많은 고고학적 증거, 예를 들어 취락 내 주거지의 규모 및 출토 유물의 차이,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 등을 그러한 사회적 위계를 반영한다고 보는 인식이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청동기시대 사회는 종적인 위계질서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의 횡적인 연계가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관계는 어떠한 방식이든 물질 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계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군집묘를 검토했다. 그 결과 종적인 위계 구분 없이, 아마도 출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두 가지 형식의 무덤이 합장되어 있는 횡적 연계가 확인되는 사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동일한 위계에 있으면서 횡적 연계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축조된 무덤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종적 위계보다 횡적 연계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 매장 자세의 차이를 횡적 연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등, 종적 위계 외에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군집묘 등을 확인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많은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무덤 피장자의 생물학적·사회적 정보를 얻기 어려운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성상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를 종적으로 서열화되고 위계화된 사회로 규정짓는 시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 종적 위계와 횡적 연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혼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청동기시대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투고일 2024. 6. 19.

심사일 2024. 8. 9.

제재 확정일 2024. 8.19.

주제어(keywords) 청동기시대(Bronze age), 군집묘(clustered burials), 석관묘(stone coffin tomb), 석개토광묘(stpme pit tomb), 혼계(heterachy)

Abstract

Clustered Burials and Hierarchy in the Bronze Age

Yi, Kisung

There are various viewpoints for understanding the Bronze Age, with the most common perspective being that it is a hierarchical society. This interpretation is evidenced by many archaeological facts, such as differences in the sizes of settlements, excavated artifacts, tomb sizes, and grave goods within a villag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ate based on this assumption, significantly advancing our overall understanding of Bronze Age society.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Bronze Age society was solely composed of vertical hierarchies; various types of horizontal connections likely existed at the same time 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material data in some way.

This study reviewed a wide range of group grave types based on the concept of heterarchy, identifying many cases of group graves that reflected diverse social relationships besides vertical hierarchy. In one case, two types of tombs, possibly reflecting differences in origin, were buried together, confirming a horizontal linkage. In another case, a stone coffin tomb and a stone pit tomb were selectively built based on horizontal linkage, while belonging within the same hierarchy. Still another case showed horizontal linkage taking priority over vertical hierarchy. Additionally, there was a case where differences in burial posture reflected a horizontal connection.

Admittedly,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several assumptions, and the study has fundamental limitations due to the nature of Bronze Age tombs, where obtaining biological and social information about the tomb occupants is difficult.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defined the Bronze Age as a vertically ranked hierarchical society,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its attempt to interpret Bronze Age society using the concept of heterarchy, where vertical hierarchies and horizontal linkages are composed in diverse ways.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more comprehensively not just Korea's Bronze Age but also for prehistory more generally.